"한국이 좋아서 향수병 달랠 수 있어요"

재경회 유학생들을 만나

Merle Ann Griffith, Elizabeth Ortiz-el Hafez, Ian Michael King, Martyn Simpson. 현재 본교에 유학중인 외국인 학생은 모두 53명. 그리피스를 비롯한 4명은 초청이나 자매교류에 의해 본교에 유학온 외국인이다. 지난 4월 26일 이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았다.

킹은 영국 출신으로 뉴캐슬대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다. 뉴캐슬대는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로 매년 3~4명씩 교환 학생을 파견한다. 자매교류에 의거, 교환 학생이 자매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면 본교에서 그 학점을 인정한다.

심프슨도 뉴캐슬대 출신, 자매교류 유학생으로 정치학을 전공했다.

그리피스와 엘하피즈는 각각 미국 뉴욕대와 트랑대에서 모두 경영학과 컴퓨터를 복수전공한 학생들로 본교에서는 국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다.

경희대에서 처음 받은 느낌에 대해 이들은 한결같이 "beautiful!"이라고 말했다. 엘하피즈는 빛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을 때 마치 온세상이 눈으로 뒤덮인 것 같았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한 이들은 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입을 모았다. 킹은 영국의 대학수업은 주당 8시간 가량이라며 한국학생은 수업시간이 파다한데다 자습량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좋아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 저마다 한마디씩 던지는 바람에 마치 한국요리 전시장에 나온 것 같았다. 킹과 심프슨만 쉬운 한국어가 가능하고 엘하피즈와 그리피스는 거의 한국어를 말할 수 없는데도 김밥, 오징어덮밥, 돌솥 비빔밥, 김치, 떡볶이, 순대, 갈비 등이 분명한 발음으로 튀겨왔다.

이들의 눈에는 학생시위가 낯설게 비쳐진다. 92년도에 입학하여 최루탄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는 킹과 심프슨은 화염병을 사용한 과격시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한마디로 'black money'라고 잘라 말한다. 요컨대 한국의 정치상황에서 시위는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격렬한 투쟁방식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화염병이 먼저냐 최루탄이 먼저냐'는 문제를 따지기 전에 건전한 시위문화가 정착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엘하피즈와 그리피스는 태권도에 흠뻑 빠져있다. 93학번으로 이제 겨우 두 달 남짓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은 태권도가 재미있고 훌륭한 운동이라고 말한다. 화, 수, 금요일에 한시간씩 땀을 흘리는 이들은 고국에 돌아가서도 태권도를 계속하겠다며 태권도 동작을 해 보였다. 음악을 좋아하는 그리피스는 때때로 교내에서 흘러 나오는 음악이 마음을 포근하게 한단다. 활발한 성격의 엘하피즈는 캠퍼스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큰 즐거움이라고.

로드니 킹 사건과 관련한 LA폭동에 대해서 그리피스는 "폭동은 정황의 부당한 혹인 학대로 발생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폭동은 정황에 적합한 것이며 한국인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다며 여자관계가 복잡하다고 했다. 잇달아 엘하피즈가 손가락을 모두 펴 보이며 10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프슨은 그러한 장난에 부끄러워하는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다. 2주일에 한번씩 부모님과 편지를 교환한다는 그는 아직은 이국땅에서 부모님이 그리운 것 20세이다. 그는 또 정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한국정치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 김영삼 대통령의 개혁정치에 관련해 그는 "썩 잘하고 있다"고 평한 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전해를 피력했다.

엘하피즈와 그리피스는 만 28세로 기혼이다. 각각 결혼 6년, 5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이들은 남편이 너무 보고 싶지만 한국이 고향처럼 포근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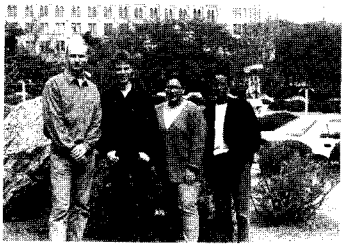
킹은 가끔씩 한국인들에게 욕설을 듣는다. 한국 여자 친구랑 같이 다닐 때 "buck off"라는 욕을 들을 때면 슬퍼진다고 그러면서 자기를 미국인으로 오해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을 묻는 질문에 그리피스는 한국인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를 미국인으로 오인해 낯선 한국인들이 적대한다는 킹의 말과 맞물리는 질문이었다. 10, 20년 전에는 미국이 선호국가 1위였으나 현재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이 5, 6위 정도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반미기운이 있다는 기자의 설명에 그리피스는 쓸쓸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역기능을 담당했는지는 이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한국에서의 반미감정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TK가 대구 경북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의 지배 세력을 지칭해 야하듯이 반미감정도 일반 미국인에게 돌려질 수는 없다. 우리의 딸들이 미국에 의해 유린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인이 한국여성과 함께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자격지심에 다름아니다.

경희대에 유학온, 아니 한국이라는 전체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까?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들, 한국에서 살고 싶은 뜻을 내비치는 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전공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오늘도 한국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김중석 記者〉



◇왼쪽부터 킹, 심프슨, 엘하피즈, 그리피스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사진, 음악 즐겨

2주일에 한번씩 가족과 편지교환

□공연평

푸치니 '라보엠' 음대 공연

푸치니 특유의 애절한 선율 묘사

연출의 묘미, 무대 균형감 돋보여

4막 오페라, 예술과 사랑, 여기에 곤끈한 우정이 줄거리를 이끌어 간다. 푸치니 특유의 감칠맛 과고드는 애절한 선율미는 오페라의 감동이 어떤 것인가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케 한다.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경희음대 제11회 정기공연 '라보엠'(4.23~25)은 무엇보다 푸치니에 대한 작품 접근에 성공적이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떤 오페라에서보다 능숙한 오페라 언어(言語)를 요구하는 것이 '라보엠'이다. 오페라는 생활 감정 자체를 고스란히 반영해야 하는데 푸치니의 음악이 이를 이상적으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은 무대장치에서의 개성과 무대의 색감, 의상과의 조화 등에서 설득력을 지녔고 여기에 출연진들의 진지한 연습과정이 안정감으로 이어졌다.

흔히 대학오페라는 학예회란 통념을 가지게 된다. 열악한 예산으로 인한 무대의 엉성함과 불만스러운 사운드, 미성숙한 기량 등이 종합예술인 오페라를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한다는게 그간의 경험이다.

그러나 이번 라보엠은 적어도 대학 오페라가 여느 지방 전문 오페라단의 수준을 보기 좋게 뛰어 넘었다는 신선감을 느끼게 했다.

이훈 연출의 이번 무대는 그의 아이디어가 군데 군데 깃들어 연출의 묘미를 돋보이게 했다. 주역을 비롯하여 모든 배역이 학생들로만 이루어져 책임감있게 된 것 같다.

비미의 김진숙, 김도희, 박선옥은 어려운 역을 대체적으로 잘 해 냈으나 음색이나 톤의 안정감등에 미숙함을 보였다.

루돌프의 김현웅은 흐름을 라보엠의 무대는 파리 학생가에 위치한 낡은 다락방, 우리의 달동네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다.

수를 놓으며 생활하는 병든 처녀 미미, 치기어린 예술흔만으로 곤궁속에서도 자신만만한 청년 시인 루돌프, 화가 마르첼로, 철학가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라보엠의 무대는 파리 학생가에 위치한 낡은 다락방, 우리의 달동네를 연상케 하는 풍경이다.

수를 놓으며 생활하는 병든 처녀 미미, 치기어린 예술흔만으로 곤궁속에서도 자신만만한 청년 시인 루돌프, 화가 마르첼로, 철학가 콜리네, 음악가 쇼나르.

미국이 한국에 어떠한 역기능을 담당했는지는 이자리에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으리라. 한국에서의 반미감정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TK가 대구 경북 전체가 아니라 극소수의 지배 세력을 지칭해 야하듯이 반미감정도 일반 미국인에게 돌려질 수는 없다. 우리의 딸들이 미국에 의해 유린된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국인이 한국여성과 함께 길을 간다는 이유만으로 욕설을 퍼붓는 것은 자격지심에 다름아니다.

경희대에 유학온, 아니 한국이라는 전체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이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느낄까? 한국을 사랑한다는 이들, 한국에서 살고 싶은 뜻을 내비치는 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한국어를 배우고 전공을 배우고 한국문화를 배우는데 여념이 없다. 그들은 오늘도 한국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김중석 記者〉

□지상전시회

조개 줍는 소녀

조개를 줍는 소녀는 어떤 희망을 담고 있을까? 해맑은 소녀의 작은 꿈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김 지 훈 〈경영·2〉

문화단신

미교과 전시회 풍성

한풍열, 박재호교수 출품

미교과 교수와 학생들의 전시회가 5월 들어 어느때보다도 풍성하게 열릴 전망이다.

한풍열교수와 졸업생들이 지난 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서울시의 후원으로 서울 시립 미술관에서 '93서울현대 한국화전'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5일부터 11일까지는 허순영(대학원 4기)군이 인사동에 위치한 동호 갤러리에서 작품을 전시한다. 또한 6일부터 15일까지 현대 갤러리에서는 이종각 교수의 '이종각 개인전'이, 5일부터 11일까지 후인 갤러리에서는 김현숙군의 '김현숙 작품전'이 잇달아 열릴 예정이다.

게다가 박재호 교수도 지난달 27일부터 '부부전'을 금산 갤러리에서 전시하고 있다.

무용과 국제무용제 참가

작품 '혼자일때'로 승부

무용과 동문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서울 현대 무용단(단장 박명숙 체대 무용과 교수)이 한국 무용협회와 서울 방송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현대 무용제'에 참가한다.

참가작품은 '혼자일때(When I am alone)'이며 김선영(무용과 대학원 3기)양이 안무를 맡았다.

무용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서울 현대무용단은 10일 오후 7시30분에 출연한다.

고은 소설 '화엄경'영화화

세계관 확립 해답 제시

고은씨의 소설 '화엄경'이 영화로 만들어졌다.(연출 장선우)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할 것인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므로 세계관, 즉 철학은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철학을 갖기위한 노력은 치열해야 한다. 화엄경은 바로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한 답이다. 또한 화엄경은 난해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경전의 틀을 깨고 보다 쉽게 일반이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된다.

여인극장 '박사를…' 공연

조직속에서 인간애 추구

극단 여인극장이 제105회 정기공연으로 조원석 작, 강유정 연출로 '박사를 찾아서'를 지난 1일부터 공연하고 있다.

개인간의 상호이해와 애정에서 출발해야할 조직이 개인의 생활을 억압하는 것을 한 정신과 의사의 따뜻한 인간애에 촛점을 맞춰 그리고 있다. '전체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인권의 유린과 착취가 성행하는 조직사회에서 이 작품을 통해 따뜻한 인간애를 추구하는 것이 연출자의 변이다.

일시:5월 1일~7일까지
장소:문예회관 대극장

전문강사와 함께 외국어청취와 회화강좌

영어회화 특별강좌

1. 개 강:5월 10일(월)
2. 강의시간:
   가)초급=아침반 07시30분-08시30분 (월-금주5일 수업)오후반 18시00분-19시00분(월-금주5일 수업)
   나)중급=아침반 08시40분-09시40분 (월-금주5일 수업)저녁반 19시05분-20시05분(월-금주5일 수업)
   다)고급=저녁반 20시10분-21시10분 (월-금주5일 수업)
3. 과 정:초급, 중급 고급 각8주과정
4. 모집인원:각반 15명(선착순 마감)
5. 강 사:스티븐 A.컬리어(한국에서 회화강의 7년의 경력을 통한 고강도 훈련) 전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건국대학교 등에서 회화 강의,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수 강 료:각 과정 8주 130,000원
7. 접수기간:4월 26일-5월 7일 까지
8. 접수 및 문의처:언어교육연구원 (전 시청각교육원)사무실

영어청취 특별강좌 (TOEFL L/C, TOEIC L/C)

1. 개 강:5월 10일(월)
2. 강의시간:
   가)아침반(숙달과정)=07시30분-08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나)낮 반(숙달과정)=12시00분-13시10분 (월-금 주5일 수업)
   다)오후반(숙달과정)=17시00분-18시10분 (월-금 주5일 수업)
   라)저녁반(완성과정)=18시30분-19시4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반 4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박 준 호 선생 (외대 대학원 석사, 전 시사영어사 TOEIC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영어청취 전임강사)
6. 강의내용:
   가)TOEFL, TOEIC L/C에 가장 필요한 발음원리 60가지 정리
   나)L/C및 회화에 꼭 필요한 2word verbs정리
   다)어휘→단문→중문→복문→복잡한 문장의 단계별 청취 훈련
7. 강의대상:기업체 취업대상자, 유학준비생, 영어청취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
8. 교 재:
   L/C practice script.(당일 배부)
   TOEFL, TOEIC L/C 기출문제, V.O.A. News
   TOEFL, TOEIC L/C 고득점 전략 습득
9. 수 강 료:8주 60,000원
10. 접수 및 문의처:
    언어교육연구원(전 시청각교육원)사무실

영문법 및 독해 특별강좌

(취업대비, 유학준비, 국가고시준비, 대학원준비)

1. 개 강:5월 10일(월)
2. 강의시간:
   가)오전반-07시30분~09시30분 (월·수·금 주3일 하루 2시간씩 수업)
   나)오후반-17시00분~19시00분 (월·수·금 주3일 하루 2시간씩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각 반 5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이 삼 출 선생
   ·경희대학교 대학원 영문학 석사
   ·전 현대시사외국어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전임강사
6. 강의내용:대기업 취업 대비, 유학준비, 대학원 진학준비, 국가고시준비
7. 교 재:아카데미 TOEFL
8. 수 강 료:8주 60,000원
9. 접수 및 문의처:
   언어교육연구원(전 시청각 교육원)사무실

A.F.K.N. 청취 특강

1. 개 강:년중 계속 강의중 (수시 접수 수강 가능)
2. 강의시간:
   가)오후반=17:10-18:2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나)저녁반=18:30-19:40 (월-화-목-금 주4일 강의)
3. 강 사:
   강홍식 선생
   한국외국어대학교 卒
   현월드뉴스 영어청취지 청취비결 Series Columnist
4. 강의내용:
   가)Advanced Course:완벽 청취력의 Final Course
   나)결정적인 발음원리 33가지 요약 정리
   다)전날 A.P News
   라)Basic훈련방법인 Blank Fill-in외에 가장 강도 높은 Full Dictation및 summary훈련
   마)주제별 어휘정리 및 청취비결 수첩 프린트 제공
5. 수강대상자:
   최고급 수준의 청취, 회화, 어휘독해력을 원하시는 분
   청취와 발음으로 고민하시는 분
6. 수 강 료:1개월 단위 35,000원
7. 접수및 문의처:
   언어교육연구원 (전시청각교육원)사무실

일본어 특별강좌

(독해, 문법, 회화)

1. 개 강:5월 10일(월)
2. 강의시간:오후반=17시 00분-18시10분 (월-금 주5일 수업)
3. 과 정:8주 과정
4. 모집인원:40명(선착순 마감)
5. 강 사:송 금 순 선생 (일본 동지사대학 일문과 졸업) 현대건설 사원연수 일본어 강사 전 시사 통역 학원 강사 현 경희대학교 언어교육연구원 일본어 전임강사
6. 강의내용:가)일본어 문법 및 철저한 발음 훈련과 기초 회화 완성
   나)랩을 이용한 듣기 훈련(정확한 동경 발음)
   다)문법의 실용회화로서의 효과적인 응용 훈련
7. 수 강 료:8주 60,000원
8. 접수 및 문의처:
   언어교육연구원(전 시청각교육원)사무실

언 어 연 구 원 (☎961-0081~0083)